

중국 동남아학의 발전과 과제*

박 사 명**

I. 서론

동북아와 동남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에서 20세기 말 지역적 경제위기는 지역협력을 가속하고, 21세기 초 세계적 경제위기는 지역 통합을 추동한다. 그와 같은 역동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계의 정태적 인식에서는 여전히 동북아와 동남아는 지리적·기능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지역이다. 그러나 문제는 동북아와 동남아의 분리가 아니라 한국과 동남아의 분리이다. 동남아에 대한 관계가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동남아에 대한 직접적 관계는 개인적 순례나 표류의 간헐적 일화를 제외하면 한국전쟁 이후 최근 반세기의 현상에 불과하다. 16세기 이후 서세동점의 역사적 전환 국면에서 중국, 일본, 동남아로 구성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geopolitical)·지경학적(geo-economic) 삼각구조에서 한국은 철저하게 소외된다. 그로 인한 정태적 시간의식과 폐쇄적 공간의식이 동아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인문한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NRF-2008-362-B00018). 이 논문의 초고에 대한 여러 토론자 및 심사자의 대단히 유익한 조언에도 불구하고 시간적·공간적 제약 때문에 여전히 보완이 미비한 부분은 필자 자신의 책임이다.

**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smpark@kangwon.ac.kr

시아에 대한 한국 학계의 역동적·개방적 인식을 저해한다. 이 연구는 그러한 정태적·폐쇄적 인식을 타파하기 위하여 중국 동남아학의 역사적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에 있어서 동남아학의 발전은 지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와 인접하고 있는 대국으로서 그 급속한 부상에 따라 다양한 주변지역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중국의 전략적 보편성을 반영한다.¹⁾ 1949년 공산혁명 이후 1978년 개혁개방까지 30년 동안 정부조직의 난맥, 정부기능의 혼선, 정부수요의 부족 등 때문에 중국의 지역연구는 주변 각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단편적 연구를 넘어 독립적 영역의 학문으로는 발전하지 못한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최근 30년 동안 대외적으로 세계체제 편입이 가속화되고 대내적으로 외교정책 결정이 제도화됨에 따라 지역연구에 대한 정부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지역연구가 독립적 학문영역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의 동남아학은 대외적 지역전략의 출현과 그에 대응하는 대내적 지역연구의 발전이라는 거시적 맥락을 통하여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唐世平·張蘊齡 2004; 唐世平·張洁·曹筱陽 2005).

한편 동남아학의 발전에는 중국에 대한 동남아의 지역적 특수성도 반영되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의 관계는 현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사료가 비축되어 있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간적(‘天時’), 공간적(‘地利’), 인간적(‘人和’) 조건이 가장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분야인 것이다(賀聖達 2003, 107; 于向東 2005; 梁志明 2007, 16). 시간적으로, 중국과 동남아는 중화질서의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긴밀한 순치(脣齒)관계를 형성한다. 공간적으로, 중국과 동남아는 서로 인접한 지역으로서 밀접한

1) 이 논문에서 ‘중국’은 타이완, 홍콩, 마카오 등을 제외한 대륙의 중국을 지칭하며, ‘학자’는 중국에서 국내 학계를 중심으로 활동하거나 해외에서 국내 학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활동하는 중국 국적의 학자를 포괄한다.

‘지연’을 공유한다. 인간적으로, 중국과 동남아는 전세계 화교화인(華僑華人)의 80% 이상이 동남아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계민족(境界民族)이 국경을 초월하여 두 지역에 산재하는 각 별한 ‘혈연’을 과시한다.²⁾ 따라서 지역연구에서 중국의 동남아학이 차지하는 중요한 국내적·국제적 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梁志明 2007: 16).

냉전종식 이후 동남아학의 객관적 여건이 서구사회에서는 급속히 악화되는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꾸준히 개선된다(Reid 2003; Chou and Houben 2006; Saw and Wong 2007). 중국의 경우 1970년대 말 개혁개방, 1980년대 말 냉전종식, 1990년대 말 동아시아 경제위기 등 중요한 역사적 계기를 거치면서 동남아학의 부흥과 발전이 획기적으로 진전된다. 그에 따라 동북아와 동남아의 역사적 통합구조를 부각하는 동아시아적 시각을 통하여 동남아에 접근하는 광역적 “동아시아사(東亞史)”(楊軍·張乃和 2006; 李文 2007)의 당위성이 강조된다.³⁾ 최근에는 중국과 동남아의 경계를 관통하는 개인, 집단, 공동체, 네트워크 등 다원적 접촉경로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중층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중국과 동남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현상에 주목하는 “중국-동남아학(中國-東南亞學)”(劉宏 2000; 鄭一省 2002; 曾玲 2003; 吳前進 2005)의 문제의식이 제기된다. 과거와 현

2) 여기에서 ‘화교화인’은 중국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국제학계의 일반적 관행에 따라 해외의 중국계 민족(화족) 가운데 중국국적을 유지하는 화교(overseas Chinese)와 현지국적을 보유하는 화인(ethnic Chinese)으로 분류된다. ‘경계민족’은 ‘월경민족(越境民族)’, ‘과경민족(跨境民族)’, ‘과계민족(跨界民族)’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중국 남부지역과 동남아 북부지역의 국경을 초월하여 거주하는 대략 17개 정도의 소수민족이다(劉稚 2007: 2).

3) ‘동아시아사’의 시각에 따르면, 중국 남부지역과 동남아는 열대성 및 아열대성 기후 풍토, 경제구조, 민족구성, 고대문화 등 이 지극히 유사하므로 경계의 설정은 지나치게 인위적이다. 사실 그러한 역사적 시각은 이미 중국 내외에서 ‘화이질서(華夷秩序)’, ‘중화질서’, ‘중화세계질서’, ‘조공체제’, ‘조공책봉체제’, ‘천조예치체제(天朝禮治體制)’, ‘동아질서’, ‘동아세계’, ‘동아세계체제’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된 바 있다(楊軍·張乃和 2006: 141).

재의 재구성을 통하여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모색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동아시아적 동남아학의 일정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언어(영어)패권으로 인한 서구사회의 ‘수출용’ 동남아학과 대조되는 언어(영어)장애로 인한 동아시아의 ‘내수용’ 동남아학이 온전히 극복되기는 아직 어려운 실정이다(Hayami 2006). 그러나 동남아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동아시아적 시각의 부상은 세계화와 지역화의 새로운 역사적 국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한다. 중국의 경우 그러한 문제의식은 미시적으로는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관계와 현실적 위상이 내포하는 중국적 특수성을 부각하는 한편, 거시적으로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geocultural) 변동이 급속하게 전개되는 동아시아의 지역적 보편성을 대변한다. 따라서 그것은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와 동남아 사이의 폐쇄적이고 정태적인 경계를 부정하고 두 지역 사이의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연계를 부각하는 동아시아적 시각의 실증적 단초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그와 같이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동아시아적 시각을 통하여 중국 동남아학의 역사적 계보, 현실적 동향, 미래의 전망 등에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중국 동남아학의 역사적 계보가 왕조시대의 ‘전통적 동남아학,’ 1911년 이후 중화민국(中華民國) 국민당(國民黨) 정부 시기의 ‘맹아적(萌芽的) 동남아학,’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공산당(共產黨) 정부 전기의 ‘폐쇄적 동남아학,’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공산정부 후기의 ‘개방적 동남아학’ 등 단계적으로 구명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최근의 ‘개방적 동남아학’에서 전개되고 있는 연구기구의 확장, 연구성과의 급증, 연구주제의 분화 등 발전적 현상을 중심으로 중국 동남아학의 현실적 동향이 분석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개방적 동남아학’에서 여전히 노정되는 편향적 접근시각, 전통적 연구방법, 민족적 연구주

제 등 일부 주요한 문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중국 동남아학의 향후 전망이 모색될 것이다.

II. 정치변동과 동남아학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장구한 왕조시대의 전통적 중화질서가 해체된 이후 20세기에 이르면 신해(辛亥)혁명(1911), 공산혁명(1949), 개혁개방(1978) 등 세 차례에 걸친 정치체제의 급격한 변동이 보수적 민족주의, 급진적 사회주의, 실용적 발전주의 등 세 가지 정치이념의 근본적 전환을 수반한다. 그러한 혁명적 정치변동은 인문사회과학적 영역으로서 중국 동남아학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에 따라 근대 이후 중국의 동남아학은 학계 외부의 정치환경과 학계 내부의 연구역량 사이에서 진행되는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맹아적 동남아학’, ‘폐쇄적 동남아학’, ‘개방적 동남아학’ 등 세 단계의 변화를 드러낸다. ‘맹아적 동남아학’은 정치혼란이 거듭되는 국민정부 시기(1911-1948)에 부상하고, ‘폐쇄적 동남아학’은 마오쩌둥(毛澤東)이 군림하는 공산정부 전기(1949-1978)에 출현하며, ‘개방적 동남아학’은 덩샤오핑(鄧小平)이 주도하는 개혁개방 이후(1979-현재)에 발전한다.

1. 전통적 동남아학

중국의 각종 역사적 문헌에서 동남아에 관한 표기는 시대에 따라 ‘남해(南海)’, ‘동서양(東西洋)’, ‘남양(南洋)’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한다. 한대(漢代: 906 BC-AD 220)에 처음 출현하는 ‘남해’가 당대(唐代: 618-907) 및 송대(宋代: 960-1279)에는 널리 유통되고, 원대

(元代: 1271-1368)에는 ‘남해’와 ‘동서양’이 혼용되며, 명대(明代: 1368-1644)에는 ‘서양’으로 통합되고, 청대(清代: 1644-1911)에는 ‘남양’이 상용된다(王民同 1984; 王民同 外 1994, 3-4).⁴⁾ 따라서 중국 동남아학의 역사적 기원은 한대 초반 쓰마첸(司馬遷)의 『사기(史記)』(91 BC)에서 청대 중반 량치차오(梁啓超)의 『중국식민 8대위인전(中國殖民八代偉人傳)』(1905)까지 무려 2천년을 포괄하는 왕조시대의 ‘전통적 동남아학’이다(袁丁 2006; Wang 1991: 27-28). 중화질서가 부상하는 한대부터 중화질서가 해체되는 청대까지 왕조실록 등 각종 공식문서는 물론 견문기록 등 각종 민간문헌으로 구성되는 ‘전통적 동남아학’은 동남아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가장 방대한 자료를 비축하게 된다(于向東 2005: 梁志明 2007: 16).

동남아에 관한 중국의 관심은 전통적 중화질서의 주요한 일부를 구성하는 동남아에 대한 ‘지연’은 물론 명대 및 청대에 급증하는 중국인의 이민--상업목적의 화상(華商) 및 계약노동의 화공(華工)--이 초래하는 동남아에 대한 ‘혈연’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심화된다. 예컨대 명대에는 공진(鞏珍) 『서양번국지(西洋藩國誌)』(1434), 마환(馬歡) 『영애승람(瀛涯勝覽)』(1451), 장세(張燮) 『동서양고(東西洋考)』(1617) 등 각종 견문기록에 의하여 동남아 각지의 지리, 풍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화상(華商)의 실정 등이 소개된다. 청대에는 왕다하이(王大海) 『해도일지(海島逸誌)』(1791), 웨이위안(魏源) 『해국도지(海國圖誌)』(1852), 장더이(張德彝) 『항해술기(航海述奇)』

4) ‘남해’는 한대에 처음으로 등장하여 당대의 義淨 『南海寄歸內法傳』(691) 등에서 두루 사용되고, ‘동양’과 ‘서양’은 원대의 陳大震 『大德南海誌』(1304) 및 汪大淵 『島夷誌略』(1349)에서 출현하여 명대의 鞏珍 『西洋藩國誌』(1434) 및 張燮 『東西洋考』(1617) 등에서 자주 사용되며, ‘남양’은 청대의 陳倫炯 『海國見聞錄』(1730) 이후 널리 확산된다. ‘남해’와 ‘남양’은 대체로 현재의 동남아와 중첩하며, ‘동서양’은 보르네오, 자바, 필리핀 등을 포함하는 ‘동양’과 그 서부 및 인도양을 포함하는 ‘서양’으로 구성된다(王民同 1984). 중국에서 ‘남양’은 1970년대까지 널리 사용되며, ‘동남아’는 1980년대부터 사회화된다(王慶武 2004: 9).

(1866), 리종주에(李鐘瑀) 『싱가포르풍토기(新加坡風土記)』(1887) 등 각종 민간문헌을 통하여 동남아 각지의 다양한 실상은 물론 화공(華工)의 비참한 실태가 보고된다(李安山 2002: 998-99; Leonard 2009: 22-67).

‘전통적 동남아학’은 그 접근시각과 연구방법에 있어서 모두 심각한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이론적 분석을 결여한 채 전통적 서술에 의존하는 연구방법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지나친 자국중심주의(ethnocentrism)가 풍미하는 접근시각이다. 그것은 전통적 중화주의를 반영하는 화이질서론(華夷秩序論)으로 표현되지만, 청대 말기에는 서구적 제국주의를 모방하는 ‘화교식민론(華僑殖民論)’으로 변용되기도 한다. 중화제국의 책봉(冊封)과 주변민족의 조공(朝貢)에 기초하는 화이질서의 위계구조에서 동남아 각지의 자율성은 철저하게 배제된다(李安山 2002: 1000-02; 于向東 2005; 梁英明 2008: 86). 화교의 참상을 부각하는 소극적 시각을 탈피하여 그 저력을 강조하는 적극적 시각을 제시하는 량치차오의 ‘화교식민론’에서 동남아 각지의 화교사회는 서구의 정부주도적 식민주의와 대조되는 중국의 민간주도적 식민주의를 대변한다. 그에 의하면, “남해의 1백 수십 국가는 그 인민이 대부분 중국민족의 자손이며,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당연한 중국민족의 식민지이다”(李安山 2002: 1000). 서구의 도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그와 같이 ‘새 병의 헌 술’로 절충되는 것이다.

2. 맹아적 동남아학

중화질서의 해체와 더불어 ‘전통적 동남아학’이 현실적 기반을 상실함에 따라 근대적 동남아학의 맹아는 중화민국의 국민정부 시기(1912-1949)에 성장한다. 그 제도적 기반은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화

교대학으로서 1906년 난징(南京)에서 개교한 지남(暨南)대학과 1921년 개교한 사먼(廈門)대학이다. 특히 지남대학은 1918년 『중국과 남양(中國與南洋)』을 창간하고, 1927년 남양문화사업부를 조직하여 정기학술지 『남양연구(南洋研究)』와 총 40종의 『남양총서(南洋叢書)』를 간행함으로써 근대적 동남아학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曹云華 2007: 62). 1942년에는 최초의 공식적 연구기관으로서 남양연구소(南洋研究所)가 국민정부에 의하여 설립되어 역사연구 및 화교연구에 착수한다(李安山 2002: 1005-09). 그러나 ‘맹아적 동남아학’은 외국 저술의 번역에 집중되는 한편 주체적 연구는 동남아의 역사, 지리, 문화, 환경에 대한 피상적 서술에 국한된다.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성과는 중국-동남아관계의 역사 및 동남아 화교사회의 역사에 관한 연구이다.⁵⁾

이 단계에서 동남아학의 부상을 주도하는 원로세대는 대체로 1910년대에서 1920년대까지 중국본토에서 출생한 화교출신 세대이다. 그들은 대부분 1930년대 중일(中日)전쟁의 난국을 피하여 동남아로 이주하므로 중국의 고전지식과 동남아의 현지경험이 모두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화교역사 이외에 막상 동남아 토착사회에 관한 본격적 연구는 희소하다. 그들은 1940년 싱가포르에서 중국남양학회(中國南洋學會)를 창립하며, 일부는 1945년 중일전쟁의 종전 이후 또는 1949년 공산혁명의 성공 이후 귀국하여 베이징대학의 동방언어학과, 역사학과, 국제관계학과를 중심으로 신진세대의 양성에 기여한다(廖建裕 2007: 10-11; Suryadinata 2007: 33-34). 그러나 ‘맹아적 동남아학’을 주도하는 원로세대는 여전히 제국적 중화주의를 추구하는 전통적 자국중심주의를 보수적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근대적

5) 그 대표적 성과는 陳達 『南洋華僑與閩粵社會』(1936), 李長傳 『南洋地理志略』(1928) · 『中國植民史』(1937) · 『南洋各國史綱要』(1938), 馮承鈞 『中國南洋交通史』(1936), 姚楠 『古代南海史地叢考』(1944) · 『中南半島華僑史綱』(1945) 등이다(袁丁 2007: 28-29).

자국중심주의로 대체하는 수준에 안주한다. 예컨대 량치차오 ‘화교 식민론’의 영향에 따라 동남아 각지에 대한 중국인의 이주는 일반적 이민과는 다른 ‘식민’, ‘척식(拓殖)’, ‘이식’ 등으로 인식된다(Wang 1991: 25-30; 李安山 2002: 1003-1004).

그와 같이 정치적 성격이 짙은 민족주의적 연구는 ‘화교조국공헌론’, ‘화교혁명모태론’, ‘화교민족주의론’, ‘화교문화우월론’ 등으로 표현되어 신해혁명과 항일전쟁에 대한 화교사회의 역할을 부각한다(李安山 2002: 1009-10). 리장푸(李長傅)의 『화교(華僑)』(1927) 및 『중국식민사(中國殖民史)』(1937)와 황징완(黃警頑)의 『화교의 혁명사적(華僑革命史迹)』(1933) 및 『화교의 조국에 대한 공헌(華僑對祖國的貢獻)』(1940) 등은 그러한 민족주의적 경향을 대표한다(李安山 2002: 1004). 한편 역사상 처음으로 서구적 사회과학의 영향을 반영하는 학술적 연구가 출현한다. 그 선구적 사례는 천다(陳達)의 『중국 이민: 노동조건에 관한 전문고찰(中國移民: 關於勞動條件的專門考察)』(1923) 및 『남양화교와 푸젠광둥사회(南洋華僑與閩粵社會)』(1938) 등으로서, 화교이주의 국제적 배경 및 국내적 요인과 아울러 화교사회의 내부적 구조 및 경제적 기능이 객관적으로 분석된다(李安山 2002: 1007-08; 梁英明 2008: 86-88).

3. 폐쇄적 동남아학

1949년 공산정부 수립 이후 월남전쟁(1965-1975) 및 문화혁명(1966-1976)에 이르러 절정에 도달하는 ‘폐쇄적 동남아학’은 전통적 중화사상과 보수적 민족주의를 모두 부정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국제질서를 지향하는 급진적 정치이념의 도구로 동원된다. 공산정부 수립 직후 동남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푸젠(福建), 광둥(廣東), 광시(廣西), 윈난(雲南) 등 남부지역의 교육

기관(대학) 및 연구기관(사회과학원)에 동남아 관련 연구기구가 증설되고, 베이징(北京) 및 상하이(上海) 등지에서도 역사연구와 화교연구를 중심으로 동남아연구가 재개된다. 그러한 연구경향은 국가정책의 요구뿐만 아니라 화교출신 연구인력의 성향에도 기인한다(袁丁 2007: 29). 그러나 그들은 냉전체제의 고착에 따른 학술활동의 부진과 문화혁명의 파국에 따른 학술활동의 중단에 직면한다(梁志明 2007: 17; 曹云華 2007: 64; 廖建裕 2007: 10-11; Suryadinata 2007: 33-34).

중국 동남아학의 혁명적 성향은 기본적으로 동남아 각국에 대한 공산정부의 혁명적 외교정책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초기에는 식민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이념으로서 서구적 주권원칙의 수용으로 표현되고, 후기에는 제국주의(미국) 또는 수정주의(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전략의 추진으로 표현된다. 전자의 대표적 사례는 1954년 미얀마와의 ‘평화공존 5원칙’ 선언, 1955년 반둥(Bandung) 아시아아프리카회의, 1955년 인도네시아와의 이중국적금지조약 등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연면한 전통의 중국중심적 시각을 폐기하는 주권평등 원칙이 표방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문화혁명의 전개과정에서 ‘국가외교’와 ‘인민외교’의 분리라는 명분에 따라 인도차이나 3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은 물론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각국 공산당의 무장투쟁을 지원하는 ‘혁명수출’ 정책이 지속된다 (Van der Kroef 1980).

그와 같은 급진적 정치환경에서 ‘폐쇄적 동남아학’의 폐쇄적 성향이 접근시각, 연구방법, 연구주제 등에 다각적으로 투영됨에 따라 연구성과의 빈곤이 악화된다. 그 접근시각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 및 모택동사상의 교조적 이론모델이 도식적으로 관철되고, 그 연구방법에 있어서 경험주의 및 실증주의에 기초한 미시적·심층적 분

석이 아닌 경제주의 및 구조주의에 입각한 거시적·피상적 기술이 흥미하며, 그 연구주제에 있어서 민족해방, 인민해방, 농민혁명, 계급투쟁 등 정치적·이념적 주제가 압도한다(Wang 1991: 32-33; 于向東 2005). 그러한 ‘폐쇄적 동남아학’의 폐쇄성은 역사연구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다.⁶⁾ 그 자료는 현지 및 중국의 자료가 아닌 소련 및 서구의 저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그 서술은 소련 등 공산진영의 교과서적 기술을 기계적으로 답습한다. 그에 따라 동남아 각국의 역사적 역동성 및 현실적 다양성이 은폐되는 것은 거의 필연적인 현상이다(袁丁 2007: 30).

그 결과 ‘폐쇄적 동남아학’은 연구성과의 양적 빈곤과 질적 저하를 회피할 수 없게 되는데, 그 전반적 수준은 국민정부 시기의 ‘맹아적 동남아학’에 비하여 오히려 후퇴한다. 공산정부의 초기 30년 동안 동남아 각국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에 관한 약간의 통속적 책자와 역사에 관한 소수의 학술적 논문 이외에는 본격적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맹아적 동남아학’의 중심적 주제인 화교화인의 역사조차 출판실적이 지극히 빈약하여 화교화인 연구의 폐쇄와 정체를 초래한다(李安山 2002: 1011). 다만 전통적 연구방법에 따라 중국의 풍부한 사료를 통한 고증적 연구가 상당한 성과로서 주목되는 정도이다. 한편 자료의 수집 및 정리에 있어서 중국 남부 연해지역의 화교고향, 화교농장, 화교기업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한 일차자료의 수집, 중국 전통문헌의 발굴, 동남아에 관한 외국 연구성과의 번역 등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 동남아학의 부흥과 발전에 기여하므로 ‘폐쇄적 동남아학’의 최대의 학술적 공헌으로 평가된다(袁丁 2007: 31).

6) 그 대표적 성과는 周一良 『中國與亞洲各國和平友好的歷史』(1955), 田汝康 『17-19世紀中葉中國帆船在東南亞』(1957), 王輯五 『亞洲各國史綱要』(1957), 朱杰勤 『亞洲各國史』(1958), 周一良 『亞洲各國古代史』(1958), 王啓民 外 『亞洲各國近代史講義』(1959) 등이다(袁丁 2007: 30).

4. 개방적 동남아학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가속적 진전을 이룩하는 중국 동남아학은 ‘폐쇄적 동남아학’의 폐쇄적 성향과는 달리 대외적으로 국제화되고 대내적으로 현대화된 ‘개방적 동남아학’을 지향한다. 그에 따라 동남아학의 접근시각, 연구방법, 연구주제 등에서 다양한 변화가 급속하게 전개된다(陳喬之 1992: 16-18; 戴可來·王介南 1992: 8-9; 于向東 2005). 이와 같은 ‘개방적 동남아학’의 진전은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수요의 증가, 중국과 동남아 사이 상호의존의 심화, 국제문제에 관한 각종 대중매체의 확산 등에 기인한다(표 1)(唐世平·張潔 2006: 5-7; Tang and Zhang 2007). 1989년 냉전의 종식 이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대한 관계의 정상화,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전면적 전환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에 대한 협력관계의 점진적 강화,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ASEAN+3(한국·중국·일본)’ 지역협력의 급속한 확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 이후 중국-동남아 자유무역지대의 획기적 진전 등 일련의 사태가 ‘개방적 동남아학’의 역동적 발전을 추동하는 것이다.

<표 1> 국제문제 관련 대중매체, 2006

분류	명칭	부수
국제문제 전문신문	『참고소식(參考消息)』	200만 이상
	『환구시보(環球時報)』	100만 이상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	20만 이상
국제문제 전문잡지	『환구(環球)』	25만 내외
	『세계지식(世界知識)』	14만 내외
국제문제 전문 TV	「국제관찰(國際觀察)」(중앙TV 뉴스방송)	
국제문제 전문 TV	「금일화제(今日話題)」(중앙TV 영어방송)	

출처: 唐世平·張潔 2006: 7.

그와 같은 대내적·대외적 여건의 변화가 중국 동남아학의 개방적 성향을 강화하게 되는바, 그것은 연구기구, 연구성과, 연구방법, 연구주제 등에서 다각적으로 입증된다. 연구기구의 전국적 조직은 수직적 위계구조에서 수평적 경쟁구조로 재편된다. 연구주제의 중심적 성격은 역사에서 현실로, 정치에서 경제로, 내정에서 외교로 이동한다. 연구방법의 지배적 경향은 일원적이고 폐쇄적인 접근에서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접근으로, 민족해방과 계급투쟁에 대한 도식적 강조에서 역사와 현실에 대한 구체적 분석으로 전환된다. 그에 따라 개혁개방 이후 최근 30년의 연구성과는 공산혁명 이후 초기 30년의 연구성과를 양적·질적으로 현저하게 압도하게 된다(袁丁 2007: 31). 이러한 ‘개방적 동남아학’의 획기적 진전은 1978년 개혁개방에서 1991년 소련 해체까지 제1단계의 ‘부흥’과 1992년 시장경제 전환에서 현재까지 제2단계의 ‘발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제1단계에서는 동남아학의 전문적 연구기구 및 연구인력이 문화혁명 이전 수준으로 복원된다. 문화혁명 기간에 마비되었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1980년대 초반까지 모두 정상을 회복함에 따라 동남아학의 제도적 여건이 신속하게 호전된다. 과거의 관행에 따라 각급 정부에 정책의 배경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와 번역을 진행하는 한편, 문헌정리, 현지조사, 연구논저 등 과거 성과의 정리와 출판에 주력한다(袁丁 2007: 32). 그와 같은 연구의 활성화는 연구기구의 재건과 분화에 긴밀하게 연관된다. 각종 연구기구가 각 지역의 대학이나 사회과학원에 개설되고, 각종 학술지가 복간되거나 창간되고, 정부의 단순한 산하조직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국제교류가 확대된다. 수도 및 남부지역의 각급 정부에도 연구기구가 부설되어 동남아의 정치, 경제, 안보 등에 관한 정책연구가 추진된다(袁丁 2007: 32).

이 단계에서 동남아학의 부흥을 주도하는 중견세대는 공산혁명

이전 193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 중국에서 출생하여 1949년 공산 혁명 이후 중국대학의 정규교육을 통하여 양성되고, 문화혁명 기간 동안 심각한 학문적 침체를 경험하며, 개혁개방 직후 1979년 중국동남아연구회를 창립한다. 그들은 남부지역의 사면대학, 지난대학, 중산(中山)대학, 광시(廣西)사회과학원, 윈난(雲南)사회과학원 등 이른바 ‘동남아학의 5대기지’와 베이징(北京)대학 등을 중심으로 중국 각지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 포진하여 동남아학의 부흥을 주도한다(廖建裕 2007: 11-15; Suryadinata 2007: 34-37). 동남아 현지언어 및 현지감각이 우세한 원로세대와 서구언어 및 국제감각이 우세한 소장세대 사이 과도적 세대로서 그들은 동남아학의 장기적 침체와 획기적 발전 사이에서 동남아학의 부흥을 위한 교량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화교연구와 관련하여 1981년에는 화교역사학회(1986년 중국화교역사학회)가 창립되고, 1984년 중국화교역사연구소(1991년 중국화교화인역사연구소로 개칭)가 설립된다(李安山 2002: 1012-13).

‘개방적 동남아학’ 제1단계의 중심적 연구주제는 역사, 화교화인, 중국-동남아관계, 경제 등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발전에 긴요한 화교화인자본의 유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 동남아 각국 화교화인의 역사에 대한 연구성과가 풍성하게 출판된다.⁷⁾ 그러나 새로운 연구성과는 그 자료를 주로 중국사료에 의존하고 일부 서구문헌을 보완하는 과거의 관행에 안주함으로써 진부한 자료, 상투적 이론, 편협한 시각, 정치사 중심의 역사적 연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연구경향에 대한 결정적 돌파에는 성공

7) 그 대표적 성과는 溫廣益 外 『印度尼西亞華僑史』(1985), 中山大學東南亞研究所 『泰國史』(1987), 周一良 『中外文化交流史』(1987), 李學民·黃昆章 『印尼華僑史』(1987), 黃滋生·何思兵 『菲律賓華僑史』(1987), 陳碧笙 『南洋華僑史』(1989), 金應熙 外 『菲律賓史』(1990), 朱杰勤 『東南亞華僑史』(1990) 등이다(朱振明 1992; 賀聖達 2003; 袁丁 2007: 32).

하지 못한다. 예컨대 중국에 대한 동남아의 전략적 중요성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연구는 정부정책에 대한 충실한 해설에 안주할 뿐 그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시도되지 않는다(袁丁 2007: 33). 그러한 한계는 바로 국제적 소통에 대한 동남아학의 전면적 개방에는 미급한 ‘중국특색 동남아학’의 실상을 대변하는 것이다(戴可來·王介南 1992: 14-15).

그 점에 있어서 현지언어와 현지경험이 우세한 현지화 세대의 퇴장과 서구언어와 국제감각이 우세한 국제화 세대의 진입은 중국 동남아학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張振江 2007: 57). 사실 ‘개방적 동남아학’의 제2단계에서 동남아학의 발전을 주도하게 되는 소장세대는 개혁개방 이후 대학교육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훈련되고 박사학위와 영어능력을 구비하여 국제화 수준이 상당히 높다(廖建裕 2007; Suryadinata 2007). 그들의 연구주제는 종교, 여성, 질병, 환경 등 다양한 문제의 학술적 관심으로 확대되고, 연구방법은 사회학, 인류학, 국제관계, 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학제적 접근으로 심화된다(曹云華 2007: 64-69). 그러나 경제발전에 따른 각종 재정지원 때문에 현지조사 등 연구여건이 개선되는 남부지역 학자를 제외하면, 그들의 연구성과는 대체로 현지언어와 현지감각의 결함 때문에 여전히 거시적이고 피상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Ⅲ. 동남아학의 발전동향

개혁개방 이후 동남아학의 부흥과 발전이라는 두 단계의 진전을 기록하는 ‘개방적 동남아학’의 현실적 동향은 연구기구의 확장, 연구성과의 급증, 연구주제의 분화 등 크게 세 가지의 특징으로 요약된다. 동남아에 근접한 남부지역의 주요한 대학과 사회과학원을 기

반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동남아학 연구인력은 연구성과의 급속한 증가를 수반한다. 연구성과의 급증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연구주제의 광범한 분화이며, 역사와 화교문제에 경사되었던 ‘맹아적 동남아학’의 연구주제가 역사와 화교문제 이외에도 정치, 경제, 법률, 지리, 민족, 민속, 문화, 교육, 종교, 군사, 국제관계, 자연과학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게 된다. 그에 따라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이 이룩되지만, 양적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질적 수준은 여전히 동남아학의 핵심적 문제로 제기된다(梁志明 2007: 16-18).

1. 연구기구의 확장

‘개방적 동남아학’의 진전을 주도하는 중심적 동력은 개혁개방 직후 신속하게 재건되거나 신설되는 각종 연구기구이다. 1979년 「중국동남아연구회」의 창립은 동남아학의 부흥과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된다(梁志明 2007, 17). 그 본부는 샤먼대학 남양연구원의 동남아연구중심에 설치되고, 회원은 전국적으로 600명을 상회한다. 중국의 경제적 개방과 성장에 따라 동남아의 전략적 위상이 제고되고, 그에 따라 동남아연구에 대한 정부의 각종 재정적 지원이 강화된다. 교육기관(대학)과 연구기관(사회과학원)의 분업화는 그 산하 동남아 연구기구의 분업화를 초래한다. 사회과학원의 연구기구는 각급 정부의 정책적 수요에 대한 대응이 중심적 기능이지만, 그것은 연구인력의 양성이 중심적 기능인 대학의 연구기구에서는 보조적 기능에 불과하다(唐世平·張洁 2006: 4-5; Tang and Zhang 2007).

전국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연구기구는 1921년 싱가포르 화교 탄카키(Tan Kah Kee, 陳嘉庚)가 설립한 샤먼대학에 1956년 개설된 중

국 최초의 동남아 연구기구인 남양연구소의 후신 남양연구원이다. 그 산하에 2000년 부설되는 동남아연구중심은 정치경제, 국제관계, 화교화인, 역사종교문화 등 4개 연구실로 조직되어 중국 동남아학의 교육 및 연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梁志明 2007: 17). 2000년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중점연구기지’로 선정되고, 2004년 국가 ‘철학사회과학 창신기지’로 인증된다. 전임교원 30명의 절반을 차지하는 해외유학 출신 소장세대의 활동은 중국 동남아학의 급속한 국제화를 실증한다. 학생은 2008년 현재 박사과정 67명, 석사과정 109명, 학부과정 59명에 이른다. 1957년 외국자료 관련 『남양자료역총(譯叢)』이 창간되고, 1974년 학술연구 관련 『남양문제연구』가 창간된다.

최근 중국에 대한 동남아의 전략적 위상이 급속하게 제고됨에 따라 남부지역의 5대 연구기구 이외에도 베이징을 비롯한 북부지역과 상하이를 비롯한 동부지역의 다양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동남아에 관한 각종 연구사업을 기획하고,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학제적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黃朝翰·曹雲華 2007).⁸⁾ 동남아 관련 각종 연구성과가 전국적으로 다양한 학술지를 통하여 발표되는 한편, 동남아학 관련 정기학술지의 간행도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중국 동남아학의 역사적 성장과 현실적 성과를 대표하는 3대 정기학술지로 평가되는 지난대학의 『동남아연구』(격월간), 사면대학의 『남양문제연구』(계간), 중산대학의 『아태평론』(반년간) 이외에 광시사회과학원의 『동남아중횡』(월간)과 윈난사회과학원의 『동남아남아연구』(계간)도 나름대로 일정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표 2).

8) 북부와 동부의 대학 및 연구기관은 동남아 지역 전체에 대한 비교연구를 중시하는 반면, 남부의 대학 및 연구기관은 동남아 개별 국가에 관한 사례연구를 중시한다. 다만 남부에서도 동부지방(광둥 및 푸젠)은 도서부 동남아를 선호하는 반면, 서부지방(광시 및 윈난)은 대륙부 동남아를 선호한다(Wong and Lai 2007: 14-16).

<표 2> 동남아학 관련 주요 연구소 및 학술지

소속기관	연구소	설립	학자	학술지	간행수
샤먼(廈門)대학	남양연구원	1956	33	『남양자료역총』	계간
	동남아연구중심	2000		『남양문제연구』	계간
지난(暨南)대학	동남아연구소	1960	25	『동남아연구』	격월간
	화교화인연구원	1981	9	『세계화교화인연구』	계간
중산(中山)대학	동남아연구소	1959	27	『아태평론』	반년간
베이징(北京)대학	동남아연구중심	2002		『북대아태연구』	반년간
윈난(雲南)사회과학원	동남아연구소	1981	16	『동남아남아연구』	계간
광시(廣西)사회과학원	동남아연구소	1979	21	『동남아총황』	월간
중국(中國)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1988	12	『당대아태』	월간
상하이(上海)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1990	20	『국제관계연구』	부정기

출처: 唐世平·張洁 2006; 黃朝翰·賴洪毅 2006; 黃朝翰·曹雲華 2007.

그 가운데 지난대학 동남아연구소의 『동남아연구』는 중국 동남아학의 대표적 학술지로서 동남아학의 부흥과 발전을 주도하며, 그 역사적 경과는 중국 동남아학의 역동적 부침을 대변한다. 국민정부 시기 상하이의 지난대학이 공산혁명 이후 1958년 광저우(廣州)에서 재건된 다음 1959년 설립되는 동남아연구소에 의하여 계간 『동남아연구자료』가 창간되고, 1966년 이후 문화혁명 기간 동안 정간된 다음 1979년 복간되며, 1987년 계간 『동남아연구』(내부발행)로 변경된 다음 1988년 공개발행으로 전환되어 1992년 현재와 같은 격월간으로 발전한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현재 동남아 관련 최고의 학술지로서 『동남아연구』는 연구의 역사와 창간의 이력이 가장 길고, 간행의 차수와 논문의 편수가 가장 많고, 필자의 분포와 주제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것으로 평가된다(張振江 2007; 曹雲華 2007).

2. 연구성과의 급증

개혁개방 이후 각종 연구기구의 확장이 선도하는 ‘개방적 동남아학’의 진전은 동남아 관련 학술서적의 출판과 연구논문의 발표가 급증하는 현상에서도 확인된다. 중국국가도서관(中國國家圖書館) 소장 도서목록색인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동남아 관련 학술서적의 출판실적이 ‘폐쇄적 동남아학’이 풍미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1958년부터 1979년까지 22년 동안 겨우 11 권에 불과하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개방적 동남아학’의 제1단계에 해당하는 1980년부터 1989년까지 10년 동안에는 모두 24 권으로 증가하고, 그 제2단계에 해당하는 1990년부터 2004년까지 15년 동안에는 무려 158 권으로 급증한다(표 3). 이와 같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출판실적은 ‘개방적 동남아학’이 거둔 양적 성과의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그 질적 성과의 미래에 대해서도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3> 동남아학 관련 저술 출판실적

시기	1958-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4
총실적	11 권	24 권	115 권	43 권
연평균	0.5 권	2.4 권	11.5 권	8.6 권

출처: 唐世平·張洁 2006: 8.

학술서적과 마찬가지로 연구논문의 발표실적도 급속하게 증가하는바, 개혁개방 이후 10년 동안의 성과가 그 이전 30년 동안 ‘폐쇄적 동남아학’의 성과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압도한다. 1979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연구논문이 1980년 174%, 1981년 370%, 1982년 393%, 1983년 390%, 1984년 445%, 1985년 516% 등으로 급속하게 증가한다. 그 10년 동안의 연구주제도 종전의 역사

<표 4> 『동남아연구』 및 『남양문제연구』 게재논문의 연구대상 (%)

연구대상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비고*
동남아지역	23.7	15.6	18.8	28.0	21.5	16.9	29.9	—
동남아각국	61.4	61.0	54.2	57.0	40.5	44.2	34.0	—
인도네시아	13.2	10.4	4.2	6.0	10.8	7.8	7.2	7.5
말레이시아	2.6	10.4	7.3	13.3	7.0	11.7	6.7	8.5
싱가포르	8.8	11.7	7.3	10.0	7.6	3.9	6.2	31.9
태국	9.2	5.2	5.2	7.0	5.1	3.9	2.1	9.1
베트남	8.8	13.0	14.6	9.3	2.5	2.6	2.1	24.2
필리핀	8.8	2.6	8.3	9.3	6.3	5.2	4.6	6.6
미얀마	5.7	6.5	2.1	1.0	1.3	9.1	4.1	6.0
캄보디아	0.9	1.3	3.1	0.0	0.0	0.0	0.0	3.3
라오스	2.6	0.0	2.1	1.0	0.0	0.0	0.0	1.9
브루나이	0.9	0.0	1.0	0.0	0.0	2.6	1.0	1.0
동남아화인	12.3	18.2	21.9	15.0	24.1	18.2	19.6	—
대중화 동남아	7.9	18.2	14.6	9.0	27.8	27.3	21.6	—
동남아연구	0.9	1.3	5.2	3.0	0.0	3.9	6.2	
합계**	106.2	114.3	114.7	112.0	113.9	110.5	111.3	100.0

참고: * 중국의 거의 모든 정기학술지(1994-2004) 게재논문에 관한 자료이다.

** 합계가 100%를 상회하는 것은 2개 국가에 관한 비교연구 때문이다.

출처: Wong and Lai 2007: 18; 唐世平·張浩 2006: 8.

(화교역사 포함)에서 탈피하여 정치 30%, 경제 30%, 역사 28%, 문화 11%, 군사 1%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된다(戴可來·王介南 1992: 9-10). 연구대상도 개혁개방 이전과는 달리 동남아의 모든 국가로 확대된다. 동남아학 관련 2대 정기학술지인 『동남아연구』 및 『남양문제연구』의 게재논문(1992-2004)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동남아 전체에 대한 종합연구의 비중이 1992년 23.7%에서 2004년 29.9%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개별적 국가에 관한 사례연구의 비중이 1992년 61.4%에서 2004년 34.0%까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제외하면 다양한 비중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에 거의 모든 국

가가 지속적으로 포함된다(표 4).⁹⁾

3. 연구주제의 분화

동남아학의 발전은 양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연구성과의 급증뿐만 아니라 질적 차원에서 드러나는 연구주제의 분화에서도 입증된다. 개혁개방 이후 소련 등 공산진영의 일원적 연구방법을 교조적으로 추종하던 ‘폐쇄적 동남아학’을 대체하는 ‘개방적 동남아학’은 미국 등 서구사회의 다원적 연구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그에 따라 동남아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종전의 도식적 서술구조를 탈피하여 다양한 분과학문의 문제의식, 접근시각, 분석이론 등에 있어서 서구학계의 다양한 연구경향이 중국학계의 동남아 연구에도 다각적으로 반영된다. 이러한 동남아학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1990년 전후 냉전의 종식과 소련의 해체에 대응하여 개방적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등소평의 역사적 결단이다(袁丁 2007: 36; 曹云華 2007: 70-71).

중국의 동남아학에 있어서 연구방법의 전환은 연구인력의 교체와 연구주제의 분화가 긴밀하게 맞물리며 전개되는 새로운 역사과정의 소산이다. 시장경제의 가속적 확산과 정치체제의 점진적 개방에 따라 다양한 문제의식과 연구주제를 추구하는 소장세대가 동남아학을 주도하게 된다. 그에 따라 동남아학이 종전의 전문적 연구에서 비전문적 연구로 광범하게 개방되어 종전에는 동남아연구와 무관하던

9) 중국 정기학술지(1994-2004) 전체의 동남아 관련 연구논문 총 2320편에 대한 분석에서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비중이 각각 국가별 연구의 3분의 1 및 4분의 1에 가까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은 중국에 대한 양국의 특별히 중요한 위상을 실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중화권과 동남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1992년 7.9%에서 2004년 21.6%로 급증하는 현상은 중국, 홍콩, 마카오, 타이완 등 대중화경제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4).

많은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이 동남아연구에 투입되며, 그 가운데 일부는 출중한 수준의 연구실적을 생산한다. 동남아의 한자매체, 희곡 문학, 종교문화, 문화교류, 법률제도, 교육제도, 농업지리, 해양이민, 경계민족, 지역주의 등 다양한 연구영역이 개척된다.¹⁰⁾ 그에 따라 비전문적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의 성과가 오히려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의 성과를 능가하는 양상까지 나타난다(袁丁 2007: 33-35; 庄國土 2008).

연구영역의 광범한 개방에 따라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인류학, 종교학, 법학, 문학, 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남아에 관한 새로운 접근시각과 연구방법이 다양하게 제출된다(陳喬之 1992: 16-17; 賀聖達 2003; 于向東 2005; 袁丁 2007: 35-36). 동남아학의 중심이 역사적 연구에서 현실적 연구로 이동한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각종 동남아 관련 저술의 주제가 경제(60% 내외), 정치, 문화, 역사의 순서로 반전됨에 따라 왕조시대의 ‘전통적 동남아학’은 물론 근대 이후 ‘맹아적 동남아학’에서 ‘폐쇄적 동남아학’까지 줄곧 중국의 동남아학에 군림하던 역사의 위상은 경제로 교체된다(趙和曼 2000). 연구주제의 광범한 분화는 동남아학 관련 학술지의 게재논문에서도 발견된다. 종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던 역사학적 연구를 대체하여 다양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급증하는 것이다(賀聖達 2003).

『동남아연구』와 『남양문제연구』의 게재논문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1992년 60%를 상회하던 경제학적 연구가 2004년 16%로 획기적

10) 그 대표적 성과는 吳關琦 外 『東南亞農業地理』(1993); 賴伯疆 『東南亞漢文戲劇概觀』(1993), 王正毅 『周邊地帶發展論: 世界體系與制東南亞的發展』(1997), 曾少聰 『東洋航路移民』(1998); 張英 『東南亞佛教與文化』(1999), 陸建人 『東盟的今天與明天』(1999), 程曼麗 『海外漢文仲媒研究』(2001), 周偉民·唐玲玲 『中國-馬來細亞文化交流史』(2002), 何勤華 外 『東南亞7國法律發達史』(2002), 周建新 『中越·中老越境民族和宗族關係研究』(2002), 庄兆聲 『馬來西亞基礎教育』(2004) 등이다(袁丁 2007: 35-36).

으로 감소하는 반면 정치학적 연구는 1992년 11%에서 2004년 4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역사학, 사회학, 인류학 등 다양한 학제적 연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한다(Wong and Lai 2007: 20-22). 동남아학 3대 학술지의 게재논문(2000-2004)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동남아 연구』와 『아태평론』은 대외관계 관련 주제가 많은 반면 『남양문제 연구』는 경제 관련 주제가 많다는 차별성이 드러나는 한편 모두 주제가 매우 다양하다는 유사성도 뚜렷하다(표 5). 동남아학에서 자주 강조되는 학제적 접근은 국제문제에 대한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일부 전통적 주제 이외에 미국문제, 아태지역, 국제관계 등 세계화와 지역화에 관한 주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Wong and Lai 2007: 17-19; 曹云華 2007: 70).

<표 5> 동남아학의 연구주제, 2000-2005 (%)

주제	『동남아연구』	『남양문제연구』	『아태평론』
대외관계	25	15	35
화교화인	19	17	0
정치	18	5	17
사회	11	4	3
경제	7	40	5
지역협력	6	3	5
역사	5	12	22
안보	5	2	11
종교	4	2	7
합계	100	100	105 *
논문편수	359	227	81

참고: * 합계가 100%를 상회하는 것은 정치와 경제를 모두 다룬 논문 때문이다.
출처: 張振江. 2007: 49-50.

IV. 동남아학의 주요문제

최근 30년 동안 ‘개방적 동남아학’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동남아학의 중국적 현실은 여전히 다양한 한계를 노정한다. 첫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근본적 접근시각에서 드러나는 지나친 자국중심주의이다. 동남아에 관한 다양한 문제의식이 여전히 중국의 국가 이익과 국가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제기되는 경향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의 막중한 위상과 역할 때문에 다른 국가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둘째, 서구사회의 다양한 연구방법에 대한 전면적 개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 연구방법이 주류를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연구방법이 미시적, 경험적, 심층적, 분석적이기보다는 거시적, 추론적, 피상적, 서술적이다. 셋째, 기초적·학술적 성격의 연구보다 응용적·정책적 성격의 연구가 연구성과를 풍미한다. 무엇보다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중심적 위상과 주도적 역할이 전제되는 민족주의적 연구주제가 주목된다. 이러한 한계가 가장 분명하게 표출되는 주제는 바로 동남아의 화교화인 문제이다.

1. 편향적 접근시각

‘개방적 동남아학’은 자국중심주의의 연면한 역사적 전통을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중화질서의 전통적 세계관을 표상하는 개념 ‘천하(天下)’를 둘러싼 최근의 이론적 논쟁은 그것이 수직적이고 일원적인 패권의 세계질서를 의미한다는 시각과 수평적이고 다원적인 조화의 세계질서를 의미한다는 시각의 날카로운 대립을 드러낸다(趙汀陽 2005; 張曙光 2006; 柯嵐安 2008; 趙汀陽 2008). 그러나 적어도 이념적 차원이 아닌 역사적 차원에서는 그것이 수직적이고 일원적인 중국중심적 지역질서에 기여했다는 점에는 전반적으로 동

의한다. 왕조시대의 ‘전통적 동남아학’에 투영되는 그러한 중국중심적 세계관은 근대 이후 ‘맹아적 동남아학’과 ‘폐쇄적 동남아학’을 거친 ‘개방적 동남아학’에 이르러서도 온전하게 타파되지 않는다. 중국적 세계관의 격세유전이 여전히 동남아에 대한 근본적 접근시각의 중국중심적 편향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학계 내부에서도 중국중심적 편향의 문제가 자주 제기된다. ‘자국중심주의’(唐世平·張洁·曹筱陽 2005), ‘중국중심주의’(梁英明 2002; 梁英明 2008; 梁志明 2007; 唐世平·慕大鵬 2008), ‘중국본위주의’(張秀明 2008) 등으로 지적되는 전통적 자국중심주의가 ‘개방적 동남아학’의 경우에도 다각적으로 투영되고 있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동남아에 대한 근본적 접근시각에 내재하는 그와 같은 ‘중국중심성’(Ho 2007) 때문에 동남아의 객관적 현실과 중국의 주관적 인식 사이 격차가 확대될 위험이 상존한다. 중국에 대한 동남아 각지의 경제적 교역을 모두 정치적 종속으로 착각하는 왕조시대의 ‘조공환각’은 그 역사적 전례이다(庄國土 2005). 그것은 ‘평화적 중흥’과 ‘책임적 대국’을 표방하며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예고하는 당대의 중국에서 더욱 신중한 성찰이 요구되는 측면이다.

‘개방적 동남아학’에 상존하는 편향적 접근시각은 객관적·타율적 제약의 결과일 수도 있고, 주관적·자율적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다(陳喬之 1992: 18-19). 개혁개방 이후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풍이 강조되면서 학술연구에 대한 정치이념과 정치권력의 통제가 점진적으로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여전히 학술연구를 다각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동남아학에 있어서 실용주의적 경제연구나 민족주의적 화교연구로 이동하는 경향은 매우 자연스런 현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梁英明 2002; 梁英明 2008: 89). 이 문제에 대하여 중국의 동남아학계 내부에서 제시

되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중국중심적 시각이나 서구중심적 시각을 넘어서 보편적 세계의식을 바탕으로 동남아중심적 시각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동남아학의 중견세대를 대표하는 한 학자에 의하면,

동남아를 연구하는 중국학자는 ‘유럽중심주의’를 지양하는 데 계속 노력하는 동시에 ‘중국중심주의’ 경향을 회피하고 극복하는 데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 동남아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세계의식을 정립하고 세계와 동남아지역의 시각에서 동남아의 역사와 현실문제를 고찰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梁志明 2007: 18).

그러한 대안에 대하여 중국의 동남아학계가 얼마나 공감하는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실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이념적·전략적 제약이 ‘중국특색 동남아학’의 보수적 편향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예컨대 미얀마의 정치문제는 주권국가와 내정불간섭이라는 규범적 가치 이전에 이미 중국의 정치체제와 국가이익이라는 현실적 요구 때문에 동남아학의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동남아 각국의 역사문제, 내정문제, 외교문제 등에 있어서 중국의 국가이념과 국가정책은 일차자료의 수집과 연구결과의 출판을 제약한다. 동남아의 정치에 대한 연구가 경제에 대한 연구보다 정체되는 한편 동남아의 현실과 중국의 인식 사이 격차가 확대되는 것이다(梁志明 外 2002: 91). 따라서 중국의 동남아학이 동남아 정치의 역동성에 대한 분석과 방향성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 적실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2. 전통적 연구방법

‘폐쇄적 동남아학’의 30년 동안 동남아는 정치적 우려 때문에 중국학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중국은 재정적 부담 때문에 자국학자의 파견이 불가능하여 동남아학의 연구방법에서 현지조사는 철저하게 배제된다(王廣武 2004: 8). 따라서 화교출신으로서 현지조사를 통한 일차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던 원로세대조차 주로 화교문제에 관한 역사적이고 서술적인 연구로 만족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개방적 동남아학’의 소장세대는 중국대학 또는 서구유학 출신으로서 현지언어에 관한 한계 때문에 주로 이차자료를 통한 문헌연구에 의존하므로 현지조사를 통한 경험적이고 심층적이며 분석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선진적 국제수준과의 격차가 여전히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梁志明 外 2002; Liu 2003; 唐世平·張洁 2006: 11-12; 唐世平·張洁 2006: 11-12; 張振江 2007: 57; 張秀明 2008: 48; Wong and Lai 2007: 15; Tang and Zhang 2007).

개혁개방 이후 동남아학의 급속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류적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진하며, 전통적 연구방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미시적이고, 실증적이며,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서구적 사회과학의 연구방법과 대조적으로 거시적이고, 피상적이며, 서술적이고, 역사적인 전통적 연구방법이 풍미하는 것이다(朱振明 1992; 梁志明 外 2002; 唐世平·張洁·曹筱陽 2005: 12). 그러한 전통적 연구풍토 때문에 기초적 학술연구보다 응용적 정책연구가 ‘개방적 동남아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朱振明 1992; 袁丁 2007). 정책연구의 중심적 내용은 동남아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에 관한 조사보고로서 주로 정부산하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에서 수행된다(예컨대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2002). 그러나 기초연구가 아닌 응용연구는 동남아학의 질적 심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다(唐世平·張洁 2006: 9-10; Tang and Zhang 2007).

사실 실용적 정책연구는 동남아학의 전통적 특징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중국동남아연구회의 전 회장(朱杰勤)에 의하면, “동남아연구는 예로부터 경세치용(經世致用)의 학문이다. 그것은 국가의 요구와 인민의 이익에 부응해야 하며, 4개 현대화에 공헌해야 한다”(戴可來·王介南 1992: 12). 정부의 정책적 수요와 시장의 경제적 유인에 따라 각종 학술지에서 기초적 학술연구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실용적 정책연구나 단편적 시사평론의 비중이 증가한다(唐世平·張洁 2006: 9-10; Tang and Zhang 2007). 그러나 정책연구에는 그 맥락으로 기능하는 국가전략이 주로 권력정치를 강조하는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도출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수반된다. 예컨대 중국의 전략적 우위가 담보되지 않는 다른 주변지역에 비하면 동남아는 ‘세계대국’을 향한 중국의 가장 효과적인 발판이며, 그 다양한 지리적, 경제적, 종교적, 민족적 구조에 있어서 ‘세계의 축소판’이므로 중국의 세계적 도약을 위해서는 동남아에 대한 효과적 관리능력이 긴요하다는 것이다(曾品元 2003).

3. 민족적 연구주제

동남아학의 급속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질적 수준을 제약하는 편향적 접근시각과 전통적 연구방법이 가장 전형적으로 표출되는 연구주제는 바로 민족문제이다. 그것은 화교화인 문제와 경계민족 문제로 분류될 수 있다. 중국의 동남아학에 있어서 전자는 오랫동안 중심적 위상에 군림하던 전통적 주제인 반면 후자는 냉전의 종식 이후 가속되는 세계화와 지역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지역 전략에 따라 새삼스런 조명의 대상으로 부상하는 최신의 주제이다(任貴祥 2002; 劉稚 2007). 화교화인과 경계민족은 모두 중국(동북

아)과 동남아의 ‘접속지대’ 또는 ‘연결고리’로 파악되는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그러나 중국중심적 접근시각과 정책지향적 연구방법의 한계가 극복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민족문제는 동아시아의 평화적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동남아학의 근본적 지향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화교화인 문제는 중국적 특수성이 가장 날카롭게 부각되는 주제로서 중국과 동남아의 역사적 ‘혈연관계’를 상징한다. 등소평은 1978년 개혁개방 직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를 방문하여 경제발전의 현장을 관찰하고 개혁개방의 의지를 강화한다(Lee Kuan Yew 2000, 595-603). 개혁개방 직후 홍콩, 마카오, 타이완, 동남아 등지 화교화인자본의 유치를 고려하여 남부 연해지역에 4개(深圳, 珠海, 汕頭, 廈門)의 경제특구를 설치한다(任貴祥·趙紅英 1999: 292-96). 실제로 개혁개방 이후 화교화인자본은 중국에 대량으로 유입되는 외국자본의 3분의 2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任貴祥·趙紅英 1999: 287-309). 따라서 ‘개방적 동남학’의 중국중심적 한계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주제도 화교화인 문제이다. 예컨대 중국 동남아학계 소장세대의 한 대표적 학자에 의하면,

다른 국가의 이민과 그 후예에 관한 연구에 비하여 중국의 화교화인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 학술가치를 초월하는 특수성을 지닌다. 그것은 방대한 해외 화교화인이 이미 역사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 중국의 사회발전에 대한 특수한 역할뿐만 아니라 화교화인이 아직 중국의 가장 중요한 해외자원으로서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주요한 동력의 하나라는 점이다(莊國土 2008: 93).

그와 같이 중요한 연구주제로서 화교화인 문제는 화교화인과 현지국가의 상호주관적 시각이 아니라 중국--‘조국’--의 정치적,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중국중심적 시각에서 접근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국적을 보유하고 중국귀속적 ‘뿌리찾기(落葉歸根)’를 지향하는 ‘화교’의 95% 이상이 이미 현지국적을 보유하고 현지귀속적 ‘뿌리뻗기(落地生根)’를 지향하는 ‘화인’으로 전환되어 있는 현실에서 화교화인 문제에 대한 중국중심적 시각은 동남아 각국의 역동적 현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인 시각이다. 동남아 화인사회의 중국에 대한 관계는 현실적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화인사회의 일방적이고 영구적인 ‘공헌’이 아니라 상호의존과 상호갈등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이중적이고 가변적인 ‘교환’인 것이다(梁英明 2002; 梁英明 2008: 86-92; 張秀明 2008: 47). 이 점에 있어서 동남아학의 중견세대를 대표하는 한 학자의 심각한 우려는 여전히 유효하다.

동남아에 있어서 화인역사는 화인이 각국에 이주하여 점진적으로 현지민족의 일부를 구성하는 역사이며, 실질적으로 화인경제는 현지 민족경제의 일부이고 화인자본은 현지 민족자본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화교정책은 중국의 경제건설과 교육사업 대신 현지국적 취득과 현지 민족경제의 발전에 대한 화교의 공헌을 장려하고 ... 해외화인의 애국주의 대신 국제주의를 고무해야 할 것이다(汪慕桓 1992: 25-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는 대체로 동남아에 대한 화교화인의 영향과 관련된 동남아 역사의 타율적 측면만 부각하고, 화교화인에 대한 동남아의 영향과 관련된 동남아 역사의 자율적 측면은 간과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동남아의 화교화인은 중국의 해외이민으로서 현지사회에 기여하는 독립변수로 설정되는 반면 현지사회에 통합되는 종속변수로는 인식되지 않는다(Ho 2007). 그와 같은 편향적 접근시각이 ‘개방적 동남아학’의 다른 연구주제에도 다각적으로 투영되어 있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기 어려울 것이다. 회원 600여명의 중국동남아연구회에 비하여 중국화교화인역사학회의 회원이

300여 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개방적 동남아학’에 대한 화교화인 문제의 중요성을 가늠하는 데 충분할 것이다(梁志明 2002a: 2). 따라서 화교화인의 귀속의식, 대중관계, 경제구조, 해외투자 등에 대한 중국중심적 시각은 지극히 민감한 문제인 것이다(梁英明 2002; 任貴祥 2002; 李安山 2002: 1032-34).

화교화인 문제와 달리 경계민족 문제는 냉전종식 이후 가속적으로 전개되는 세계화와 지역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요청에 따라 새삼스럽게 제기된다(劉宏 2000; 劉稚 2007; 中國與東南亞民族論壇編委會 2007; 周建新 2008). 그것은 이른바 ‘국가 속의 국가’로 비유되기도 하는 동남아 각국의 화인사회와 같이 중국(동북아)과 동남아의 지리적 경계를 관통하는 ‘혈연관계’에 관한 또 하나의 실증적 주제인 것이다. 사실 중국 남부지역과 동남아 북부지역 사이 국경을 초월하여 산재하는 각종 경계민족은 동남아 또는 동북아를 넘어서는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주의에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 점에 있어서 중국(동북아)과 동남아의 지역학적 경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선구적 연구성과로서 ‘중국-동남아학’ 및 ‘동아시아사’의 출현은 오히려 만시지탄의 측면마저 있는 것이다(劉宏 2000; 王廣武 2004; 楊軍·張乃和 2006).

그러나 화교화인 문제와 더불어 최근 관심이 급증하는 경계민족 문제도 그 근본적 이중성에 대한 신중한 대응을 요구한다. 동남아와 동북아의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경계를 비판하고 그 자연적이고 유기적인 연계를 강조하는 경계민족 연구는 화교화인 연구와 마찬가지로 ‘개방적 동남아학’을 중국의 매개를 통하여 동아시아 차원으로 개방한다. 그와 같은 동남아의 역사적·현실적 역동성에 대한 동아시아적 접근시각은 그 적실성이 일정하게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개방적 동남아학의 개방’이 동남아에 대한 중국중심적 접근시

각의 편향을 동아시아 차원에서 확대재생산하게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될 수 없다. 따라서 ‘개방적 동남아학’이 당면한 초미의 과제는 그 접근시각의 중국중심적 편향을 철저히 타파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중국중심적 민족주의가 동남아학의 핵심적 계기로 작용하는 경향은 동남아를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V. 결 론

중국과 동남아는 시간적, 공간적, 인간적 조건이 완비된 지극히 긴밀한 관계를 공유한다. 그에 따라 중국의 동남아학은 왕조시대의 ‘전통적 동남아학’에서 근대 이후 국민정부 시기의 ‘맹아적 동남아학’과 공산정부 전기의 ‘폐쇄적 동남아학’을 거쳐 개혁개방 이후의 ‘개방적 동남아학’으로 계승되는 장구한 역사적 계보를 과시한다. 중화질서의 자국중심주의적 전통을 바탕으로 보수적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맹아적 동남아학’은 동남아의 화교사회와 중국-동남아관계의 역사에 관한 초보적 연구성과를 축적한다. 한편 급진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폐쇄적 동남아학’은 정치권력의 이념적 도구로 전략함으로써 연구성과의 만성적 침체를 초래한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동남아학의 부흥과 발전을 모색하는 ‘개방적 동남아학’은 연구기구의 확장, 연구성과의 급증, 연구주제의 분화 등에 있어서 획기적 진전을 이룩한다.

그와 같이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방적 동남아학’은 편향적 접근시각, 전통적 연구방법, 민족적 연구주제 등 여전히 중요한 미결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동남아에 대한 지나치게 중국중심적 접근시각을 탈피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국

제수준의 다양한 연구방법에 대한 전면적 개방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지극히 피상적이고 서술적인 전통적 연구방법이 풍미한다. 연구주제의 광범한 분화에도 불구하고 화교화인이나 경계민족과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지나친 민족주의로 인하여 다양하게 굴절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다만 동남아에 대한 연구가 동남아와 동북아의 편의적·기계적 경계를 넘어 그 근본적·유기적 연계를 부각하는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접근되고 있는 측면은 ‘개방적 동남아학’의 전망에 대한 긍정적 단서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문제는 중국 동남아학의 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접근시각의 중국중심적 편향이다. 사실 ‘개방적 동남아학’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통하여 다양하게 굴절되는 ‘중국특색 동남아학’이다. 급진적 사회주의의 이념적 도구로 동원되는 ‘폐쇄적 동남아학’과 같이 ‘개방적 동남아학’이 지역적 패권주의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방적 동남아학’이 동남아와 동북아를 유기적으로 포괄하는 동아시아적 전망을 통하여 공정하고 다원적인 지역질서의 대안에 접근하는 경우, 그것은 진정으로 개방적인 동남아학으로 평가될 수 있다. 중화질서, 식민질서, 냉전질서 등 동아시아의 역사적 지역질서는 모두 수직적 위계구조의 현실주의적 질서인 반면 미래의 지속가능한 지역질서는 다원적 상호의존의 자유주의적 질서뿐일 것이다(張小明 2006; Zhang 2006).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해서는 중국의 동남아학에서 진정으로 개방적인 새로운 계보가 성장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전통적 동남아학, 맹아적 동남아학, 폐쇄적 동남아학, 개방적 동남아학

〈참고문헌〉

- Chou, Cynthia and Vincent Houben (eds.). 2006. *Southeast Asian Studies: Debates and New Direction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Hayami, Yoko. 2006. "Towards Multi-Laterality in Southeast Asian Studies: Perspectives from Japan." In Cynthia Chou and Vincent Houben (eds.). *Southeast Asian Studies: Debates and New Direction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Ho Khai Leong. 2007. "From 'Sino-Centricity' to 'Autonomous Narrative' in Southeast Asian Chinese Studies in China." In Saw Swee-Hock and John Wong (eds.). *Southeast Asian Studies in China*.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King, Victor T. 2006. "Southeast Asia: Personal Reflections on a Region." In Cynthia Chou and Vincent Houben (eds.). *Southeast Asian Studies: Debates and New Direction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Lee Kuan Yew. 2000. *From Third World to First*. New York: HarperCollins.
- Leonard, Jane Kate. 2009. "Extracts from Wei Yuan and China's Rediscovery of the Maritime World." In Geoff Wade (ed.). *China and Southeast Asia*. Vol. IV. London: Routledge.
- Liu Hong. 2003. "Southeast Asian Studies in Greater China." *Kyoto Review of Southeast Asia* 3.
- Reid, Anthony (ed.). 2003. *Southeast Asian Studies: Pacific Perspectives*. Tempe, Arizona: Program for Southeast Asian Studies, Arizona State University.

- Saw Swee-Hock and John Wong (eds.). 2007. *Southeast Asian Studies in China*.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Suryadinata, Leo. 2007. "Southeast Asianists in China in the Last Three Decades." In Saw Swee-Hock and John Wong (eds.). *Southeast Asian Studies in China*.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Tang Shiping and Zhang Jie. 2007. "The Sta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in China." In Saw Swee-Hock and John Wong (eds.). *Southeast Asian Studies in China*.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Van der Kroef, Justus M. 1980. *Communism in Southeast A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ang Gungwu. 1991. "Southeast Asian Huaqiao in Chinese History-Writing." *China and the Chinese Overseas*. Singapore: Times Academic Press.
- Wong, John and Lai Hongyi. 2007. "Changing Academic Challenges of the Southeast Asian Studies Field in China." In Saw Swee-Hock and John Wong (eds.). *Southeast Asian Studies in China*.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Zhang Xiaoming. 2006. "The Rise of China and Community Building in East Asia." *Asian Perspective* 30(3).
- 戴可來·王介南. 1992. "中國十年來對東南亞的研究" 陳喬之·黃滋生·陳森海 編. 『中國的東南亞研究』. 廣州: 暨南大學出版社.
- 梁英明. 2002. "海外華人經濟活動研究若干問題." 周南京 編. 『華僑華人百科全書 總論卷』. 北京: 中國華僑出版社.
- _____. 2008. "華僑華人學科建設與學術定位" 吳小安·吳杰偉 編. 『中國華僑華人研究』. 香港: 香港文匯出版社.

- 梁志明. 2002a. “世紀之交中國大陸學術界關於華僑華人的研究.” 『華僑華人歷史研究』 1.
- _____ 編. 2002b. 『面向新世紀的中國東南亞學研究』. 香港: 香港社會科學出版社.
- _____ · 張錫鎮 · 楊保筠. 2002. “面向新世紀的中國東南亞學研究.” 『南洋問題研究』 1.
- _____ 外. 2006. 『古代東南亞歷史與文化研究』. 北京: 昆侖出版社.
- _____ . 2007. “關於中國東南亞學研究的幾個問題.” 『東南亞研究』 2.
- 任貴祥 · 趙紅英. 1999. 『華僑華人與國共關係』. 武漢: 武漢出版社.
- _____ . 2002. “華僑華人與祖籍國關係概論.” 周南京 編. 『華僑華人百科全書 總論卷』. 北京: 中國華僑出版社.
- 廖建裕. 2007. “中國的東南亞學者.” 黃朝翰 · 曹雲華 編. 『中國的東南亞研究』.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劉 稚. 2007a. 『中國-東南亞跨界民族發展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 _____ 編. 2007b. 『東南亞概論』. 昆明: 雲南大學出版社.
- 劉 宏. 2000. 『中國-東南亞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_____ . 2002. “舊聯系, 新網絡.” 周南京 編. 『華僑華人百科全書 總論卷』. 北京: 中國華僑出版社.
- 李安山. 2002. “中國華僑華人研究的歷史與現狀概述.” 周南京 編. 『華僑華人百科全書 總論卷』. 北京: 中國華僑出版社.
- 李 文. 2007. “構建東亞認同.” 『當代亞太』 6.
- 徐 云. 2005. “大陸華僑華人研究的文獻計量分析.” 『暨南學報』 1.
- 楊 軍 · 張乃和 編. 2006. 『東亞史』. 長春: 長春出版社.
- 王廣武. 2004. “新加坡和中國關於東南亞研究的兩種不同觀點.” 『南洋問題研究』 2.
- 王民同. 1984. “東南亞名稱沿革.” 『東南亞』 2.
- _____ · 羅致含 · 孫澄 編. 1994. 『東南亞史綱』. 昆明: 雲南大學出版社.

- 汪慕恒. 1992. “有關東南亞問題研究的幾點體會.” 陳喬之·黃滋生·陳森海 編. 『中國的東南亞研究』. 廣州: 暨南大學出版社.
- 吳小安·吳杰偉 編. 2008. 『中國華僑華人研究』. 香港: 香港文匯出版社.
- 吳前進. 2005. “跨國的視野, 體系的建構.” 『國際觀察』 3.
- 袁 丁. 2006. “評中國有關東南亞研究.” 『東南亞縱橫』 3.
- _____. 2007. “中國的東南亞研究之演變.” 黃朝翰·曹雲華 編. 『中國的東南亞研究』.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于向東. 2005. “中國的越南學研究狀況及其思考.” 『鄭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6.
- 趙汀陽. 2005. 『天下體系』.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 _____. 2008. “天下體系的一個簡要表述.” 『世界經濟與政治』 10.
- 趙和曼. 2000. “邁向21世紀的中國東南亞研究.” 『面向21世紀的東南亞』. 廣州: 暨南大學出版社.
- 張小明. 2006. “中國與周邊國家關係的歷史演變.” 『國際政治研究』 1.
- 張曙光. 2006. “天下理論和世界制度.” 『中國書評』 5.
- 張秀明. 2008. “近年國內華僑華人研究的趨勢與展望.” 吳小安·吳杰偉 編. 『中國華僑華人研究』. 香港: 香港文匯出版社.
- 張振江. 2007. “中國的東南亞研究.” 黃朝翰·曹雲華 編. 『中國的東南亞研究』.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庄國土. 2005. “略論朝貢制度的虛幻.” 『南洋問題研究』 3.
- _____. 2008. “多學科, 兼顧歷史與現狀, 教學相長.” 吳小安·吳杰偉 編. 『中國華僑華人研究』. 香港: 香港文匯出版社.
- 曾 玲. 2003. “研究和建構中國與東南亞之間的‘接觸區’.”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0(2).
- 曾品元. 2003. “中國東南亞戰略論.”
<http://www.tecn.cn/data/1083html> (검색일: 2009. 7. 7).
- 鄭一省. 2002. “一部研究中國與東南亞問題的有創見性力作.”

『世界歷史』 2.

周建新. 2008. 『和平跨居論』. 北京: 民族出版社.

朱振明. 1992. “中國東南亞研究的現狀與發展.” 陳喬之·黃滋生·陳森海 編. 『中國的東南亞研究』. 廣州: 暨南大學出版社.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2002. “中國對東盟政策研究報告.” 『現代國際關係』 10.

中國與東南亞民族論壇編委會 編. 2007. 『第二屆中國-東南亞民族論壇論文集』. 北京: 民族出版社.

曹雲華. 2007. “廣東的東南亞研究.” 黃朝翰·曹雲華 編. 『中國的東南亞研究』.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陳喬之. 1992. “對我國東南亞研究的認識.” 陳喬之·黃滋生·陳森海 編. 『中國的東南亞研究』. 廣州: 暨南大學出版社.

_____. 黃滋生·陳森海 編. 1992. 『中國的東南亞研究』. 廣州: 暨南大學出版社.

柯嵐安. 2008. “中國視野下的世界秩序.” 『世界經濟與政治』 10.

唐世平·張蘊嶺. 2004. “中國的地區戰略.” 『世界經濟與政治』 6.

_____. 張潔·曹筱陽. 2005. “中國的地域研究.” 『世界經濟與政治』 11.

_____. 張潔. 2006. “中國東南亞研究現狀.” 『當代亞太』 4.

_____. 綦大鵬. 2008. “中國外交討論中的的‘中國中心主義’與‘美國中心主義.’” 『世界經濟與政治』 12.

賀聖達. 1996. 『東南亞文化發展史』. 昆明: 雲南大學出版社.

_____. 2003. “中國東南亞史研究的成就與展望.” 『世界歷史』 2.

黃朝翰·曹雲華 編. 2007. 『中國的東南亞研究』.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10. 7. 31 투고; 2010. 9. 27 심사; 2010. 10. 08 게재확정)

<Abstract>

Southeast Asian Studies in China: Progress and Problems

Park Sa-Myung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ina and Southeast Asia share intimate relationships based on close spatial, temporal and human conditions. Thus, Southeast Asian studies in China boast of a long lineage of 'traditional', 'embryonic', 'closed' and 'opened' Southeast Asian studies. In the modern period the 'embryonic Southeast Asian studies,' professing conservative nationalism based on traditional Sino-centric perspectives, accumulated elementary knowledges on the history of Sino-Southeast Asian relations and Chinese communities in Southeast Asia. On the other hand, 'closed Southeast Asian studies' standing for radical Communism suffered from chronic stagnation.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opened Southeast Asian studies' recorded impressive progress in the restoration and development of Southeast Asian studies. Nevertheless, 'opened Southeast Asian studies' are faced with some serious problems such as biased perspectives, traditional methods, and national subjects. Most of all, it is urgent to overcome Sino-centric perspectives on Southeast Asia. Despite the opening of Southeast Asian studies to the diverse methods of modern

social sciences, descriptive studies prevail over analytical ones. Regardless of the diversification of subjects, national questions such as the overseas Chinese and cross-border nationalities are prone to excessive nationalism.

Key Words: traditional Southeast Asian studies, embryonic Southeast Asian studies, closed Southeast Asian studies, opened Southeast Asian studies